

대덕밸리 투자 여력 200억원 가량

벤처기업들의 자금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덕밸리를 중심으로 투자대상을 모색중인 창투사와 벤처캐피털들의 투자 가능 자금은 200억여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넷 취재팀이 대덕에서 활동중인 무한기술투자, 산은캐피털, 신보창업투자, 기보캐피털 관계자 등을 인터뷰해 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벤처투자회사들은 자금시장이 어렵고 심사규정이 까다로워 투자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투자할 여력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대덕밸리 벤처기업 10여개 업체에 50억여원을 투자한 무한기술투자에는 100억원의 자금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 총 235억원 규모의 대덕무한조합과 대덕테크노밸리조합에서 일부를 투자하고 남은 돈이다. 무한 측은 무리한 투자를 하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100억원대의 펀드 잉여자금이 남아있어 투자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 동안 투자 대비 회수 실적이 부진했던 무한 측은 철저한 안정 투자 노선으로 향후 소수 업체를 집중 투자해 단기간의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내비쳤다.

산은캐피털 주도로 대전시, 산업은행, 플래티넘기술투자 등이 참여한 '대덕KDB조합' 역시 적지 않은 투자자금이 남아 있다. 대략 70억원 가량이다. 산은측은 투자시사를 결정할 때 보다 신중한 투자를 위해 심사과정을 엄격히 강화했으며 특히 M&A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

중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산은측은 올 투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대덕밸리 뿐만 아니라 경기, 충청권, 전북 익산 등 투자권역을 넓혀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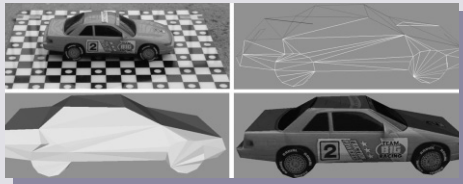
김종률 대덕밸리 지점장은 "이라크전쟁, 북한 핵문제 등 국내외적인 걸림돌들이 해결되면 결국 벤처기업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분위기가 나아지면 그 동안 지켜보던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재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01년 신보창업투자와 대전시가 결성한 '대덕벤처조합'에는 65억원이 남은 상태다. 올들어 대덕밸리 1곳에 투자한 신보측은 올해 대덕밸리 벤처투자 규모를 최대 50억원 내외로 잡고 있다.

양유현 대덕밸리 지점장은 "투자를 하고 싶지만 여건이 좋지 않다"면서 "올해 50억 투자 목표를 실현하려면 일단 코스닥 시장 안정이 선결돼야 과감한 투자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기보캐피탈이 집행하고 있는 '대덕밸리조합'에는 30억원이 남아 있으며 올해 대덕밸리 1~2개 업체에 10억원 정도 투자될 것이라고 기보측 관계자는 내다봤다.

대덕밸리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투자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난"이라고 지적한 뒤 "현재의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조차도 단기 자금난에 빠져 문을 닫을 판"이라며 투자 재개를 요청했다.



■ 대덕 신제품/신기술 ■

ETRI, 사진 이용한 3차원 모델링 기술 개발

평범한 사진으로 3차원의 가상현실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CG기반기술연구팀(팀장 최병태)은 디지털 카메라나 평판 스캐너로 작성된 평범한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마우스의 조작만으로 쉽고 빠르게 실제와 유사한 3차원 형상 모델을 생성하는 '연상기반 3차원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평범한 물체를 컴퓨터 3차원 그래픽 모델로 제작하는 기술이며 마우스 클릭 4번으로 평범한 사진파일을 실감나는 3차원 컴퓨터 그래픽 영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진 파일 2장 이상만 있으면 사진에 찍힌 물체를 3차원 가상 그

래픽 영상으로 손쉽게 재현시킬 수 있다. ETRI는 핵심 원천기술인 카메라 보정 기술을 포함해 순수 독자기술을 이용해 이번 기술개발을 성공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편리성이나 신속성에서 선진국 제품보다 한 층 진보되었고, 별도의 설정없이 사진화면에서 임의의 4개 지점을 마우스로 클릭하는 것만으로 카메라 정보추출에서 3차원 모델 생성까지 자동으로 수행된다.

또한 윈도우즈 기반으로 개발되어 호환성이 뛰어나고 결과물을 웹 브라우저에서 열어볼 수 있게 가상현실 모델링언어(VRML)로 산출되므로 데이터의 공유성과 인터넷 응용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